

구례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실시’로 부담 완화

치매진단 변별력 높이기 위해 인지검사

체계적인 검진과 전문적인 상담 실시

구례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우선 기억력 검사(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매 진단검사와 매 주 수요일마다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 및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 결과 치매가 의심 되면 협약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진단검사와 원인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영상촬영(CT, MRI)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소득기준에 적합할 경우 구례군 보건의료원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단 받은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해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1 사례관리 및 웹터 프로그램 등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조기검진은 치매진단 뿐만 아니라 매년 기억력이 저하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기억력 감퇴가 시작되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 고위험군인 75

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더불어 2021년부터는 치매 선별검사 도구가 새롭게 변경되어 기존 검사 항목보다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구성되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치매 선별검사에 변별력을 높여 치매환자 진단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군수는 “치매의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알기 위해서 60세 이상 주민은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매에 대한 상담은 구례군 치매안심센터(061-780-2558)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가능하다.

구례=박진호 기자



영암군, 비대면 (가)기억주머니 지원사업

경증 치매환자 36명 대상으로 비대면 가정방문 통해 제공

영암군은 지난 8일부터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치매관리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고 치매어르신의 인지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비대면으로 (가) 기억주머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가)기억주머니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이 경증 치매환자 36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정방문을 통해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정보 및 물품 8종이 담긴 기억주머니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설 명절 코로나19로 가족과의 만남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 36가정에 인지 자극활동 워크북, 치매예방 운동법 포스터 등 4종의 인지 정보제공과 칠교놀이 세트, 미끄럼방지매트 등 물품 4종 지원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높아진 우울감 해소를 돕는다.

또한, 물품 제공 후 주 1회 유선으로 치매어르신의 안부살피기 및 학습 상황 확인을 통해 치매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 유지를 지원한다.

한편, 영암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만 60세이상 노인 치매조기검진, 치매공공후견사업,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 등 치매 걱정 없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치매관련 상담은 영암군 치매안심센터(470-6030~1)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 관리한다

중증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등 집중 사례관리 실시



강진군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 관리에 들어간다.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100여 명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고 회복 촉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제한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약물복용 중단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 후 심층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정신의료기관

과 연계하고,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협조하여 포괄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이 불안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와 이동 제한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호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을 투입해 정신질환자는 물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심리지원 등에 관한 문의로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061-430-5943)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운전자 무료 ‘치매 선별검사’ 시행

화순군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갱신)에 필요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기억력과 판단력 등을 진단하는 치매 선별검사를 받고 교육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고령 운전자(의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검사를 원하는 고령 운전자는 화순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선별검사를 받고 교통안전교육 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치매안심센터(061-379-5317, 5394)나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어 주세요!